

白光弘의 關西別曲과 紀行歌辭*

金成基**

〈차례〉

- I. 長興의 建置 沿革과 自然
- II. 白光弘의 生平과 紀行歌辭의 出帆
 1. 白光弘의 生平
 2. 岐峯集과 關西別曲의 登梓
 3. 關西別曲의 位相
- III. 長興과 歌辭文學
- IV. 맺음말

I. 長興의 建置 沿革과 自然

장흥은 지금 3읍 7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라남도의 서남단에 자리 잡고 있는 비교적 작은 고을이다. 그러나 조선조 때 전라도가 행정상 牧, 府, 郡, 縣으로 나누어진 가운데 장흥은 목의 다음인 부로 담양, 순천, 남원, 익산 등 도호부에 속한 점으로 미루어 나라에서도 상당히 중시했던 지역임이 틀림없다.

장흥의 建置沿革은 삼한시대까지 소급이 가능하다. 곧 장흥은 삼한 중 마한에 해당되며 이른바 마한 54개국 가운데 狗溪國에 비정된 곳이다. 삼국시대로 들어오면서 백제에 소속됐고 鳥次縣으로 불리어졌다. 삼국통일을 계기로 신라에 귀속되었고, A.D. 757년 경덕왕 때에 이르러서 鳥縣이라고 고쳐 부르다가 한때 보성군의 영현으로 되면서 폐군이 된 바도 있다. 그 후 고려조에 들어와서 安定縣으로 이름을 바뀌었고, 또 다시 영암의 속현으로 이속되는 불운을 당했다. 이러한 불운은 섬나라 왜의 잦은 침입에 의한 것이었다.¹⁾

그러나 장흥의 관산 천관산 아래 古邑에서 출생하여 관작이 문하시중에게까지 올랐고 묘청난의 정벌로 큰공을 세웠던 任元厚의 딸이 고려조 17대 인종의 비인 恭睿王后가 된 뒤 장흥은 나라의 주목을 크게 받게 되었다. 더욱이 임원후의 딸, 공예왕후는 毅宗, 明宗, 神宗의 어머니로 세 아들이 임금에 올랐다. 이때부터 안정현은 공예왕후의 고향이요 임금의 외가가 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때문에 안정현은 장흥부로 승격되었다. 그 뒤 元宗 때는 장흥이 목으로 격상되었다. 그러나 충선왕 때 이르러 다시 장흥부로 환원되었다. 이 장흥부의 영현으로는 遂寧(古馬彌知), 會寧(馬斯良), 長澤(季川), 耽津(冬音)으로 지금의 강진군 일부와 완도까지도 장흥부에 속했던 지역이다.²⁾

* 이 논문은 2004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연구조교D)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1) 拙稿, 『長興地域의 歌辭研究』, 『韓國言語文學』 35집, 韓國言語文學會, 242~243쪽.

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7, 長興都護府條.

『高麗史』 卷57, 地理志.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지금의 장흥읍에 해당된 長寧城을 중심으로 장흥도호부가 설치되어 국방상, 특히 회령이 수군의 요지로 국가로부터 주목을 받고 중시되었다. 고려조 말의 명현 李穡은 장흥을 평하여 ‘순박한 백성이 사는 樂土’라고 일컬은 바 있는 곳이기도 하다.³⁾

이 장흥의 지형은 유치산맥에 에워싸여서 이룩된 산수가 수려한 곳이다. 유치산맥은 지리산의 노고단에서 시작된다. 이 산맥은 광주의 무등산과 화순 동북의 모악산을 지나 장흥의 북쪽 춘향의 서남에 위치한 화악산에서 산의 맥이 일어나 동남쪽으로 활개가 뻗어가면서 봉미산을 이루고 보성산맥으로 이어진다. 한편 화악의 서남쪽으로 뻗은 산맥은 국사봉, 수인산으로 우협이 형성되면서 강진의 병영쪽으로 이어진다. 국사봉에서 시발되어 장흥의 중앙을 관통한 또 하나의 산맥이 三寶林으로 유명한 가지산에서 일어나고, 피재를 거쳐서 龍頭山, 帝巖山, 獅子山, 億佛山, 夫蓉山, 天冠山으로 주봉을 이루면서 12개의 빼어난 영산이 세 개의 산맥을 이루며 복합으로 솟아있다.⁴⁾

장흥의 강은 중앙으로 뻗어 내린 가지산맥의 지맥인 피재와 용두봉, 제암산의 북쪽 활개인 감나무재가 분수령이 되어 산맥의 양편으로 탐진강의 본류와 섬진강의 지류인 보성강의 상류가 산맥을 감고 돌면서 석교천, 봉덕천, 기산천, 용문천, 관동천 등 48개의 크고 작은 하천이 청수를 받아들여 탐진강과 섬진강을 이루면서 남해로 이끌어 흘러간다.

탐진, 보성의 두 강을 따라서 세 줄기의 산맥 사이와 억불산과 사자산을 경계로 대륙과 해안지대로 갈라지면서 그 사이를 들녘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는 산자수명한 곳이 장흥이다.

장흥인은 산, 강, 평야를 쉬지 않고 꾸준히 개발하고 지키면서 ‘장흥’이라는 자연공간 속에서 장흥문화와 장흥문학을 힘써 가꾸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흔히 문학작품은 그 작가가 수용한 체험의 소산으로 인해서 생산된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 곧 사람의 체험이 의식의 저층에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동기로 인하여 언어와 문자라는 용기를 빌어서 밖으로 드러난 것이 시가요, 문학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체험은 그 사람의 성장노정에서 받아드려지는 ‘時·空’의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같은 시간대와 같은 공간무대, 곧 같은 환경과 여건은 같은 공동 체험으로 저장이 가능하고, 이는 특정시대의 같은 공간에서 공통된 체험으로 결집되고 발산된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라에서 향가가, 고려조에서 속요와 경기체가가 신라와 고려라는 시대와 공간의 배경을 업고 등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공에 따라서 그 시대와 그 공간에 맞는 문학의 형과 틀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은 바로 공동체험의 영향에서 비롯된 귀결이라는 이야기다.

이상의 관점에서 ‘장흥’이라고 하는 문화 공간은 장흥인으로 하여금 특수한 장흥문학을 창출시킬 수 있었다는 근거가 된다. 곧 장흥에서는 조선시대의 다른 어느 문학장르, 말하자면 시조나 소설 쪽보다 가사의 형태가 창출이 두드러졌다. 가사의 창출이 장흥에서 두드러졌던 사실은 그럴만한 필연적 요인이 깔려 있을 것이다. 그 요인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것이 장흥에서 가사를 크게 발흥시킨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요인과 연계시켜서 장흥에서 창작된 가사 작품의 면모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II. 白光弘의 生平과 紀行歌辭의 出帆

『長興郡誌』, 1993.

3) 『新增東國輿地勝覽』, 上同.

4) 拙稿, 위의 논문, 243~244쪽.

1. 白光弘의 生平

조선조 중기에 장흥 안량 岐山의 水原白氏 문중에 ‘一門 四文章’이 태어났으니, 학행에서 향민의 宗으로 숭상을 받던 三玉堂 白世仁의 세 아들, 岐峯 白光弘, 風岑 光顏, 玉峯 光勳과 종제인 東溪 光城이다. 원래 白門은 원조가 고려조 시중 蔣八로 관은 수원이다. 조선이 입조하자 이를 거역한 불복신으로, 이 때문에 海美로 잔적되어 해미인이 되었다. 기봉의 현조로 사옹원 直長을 지냈고 증조 繪가 장흥으로 옮겨온 것이 장흥과 백씨문중이 맺은 인연의 시작이다. 백씨의 후들이 비록 낙남하여 나라의 남단에 우거했으나 자질을 닦고 덕을 쌓아서 가문을 번창시켰다. 이 덕으로 白門은 세간의 광영을 얻게 됐고, 장흥의 지역사회에서 탄탄한 토반으로 굳히게 되며 그 세가 지금도 당당하다.⁵⁾

수원백씨의 계를 받아서 태어난 공은 諱가 光弘이고, 자가 大裕이며, 향리의 이름을 상징적으로 따서 岐峯으로 작호하였다. 공의 생평은 洪直弼, 邊時淵, 白師가 찬한 『岐峯集』의 <序>, 岐字萬, 白坵鎮, 白采寅, 白義寅의 <跋>, 또한 洪直弼의 <墓碣銘>, 『水原白氏世譜』, 제현들의 시문, 李晬光, 洪萬宗의 평 등으로 짐작이 가능하다.⁶⁾

백광홍은 世仁과 훈련원첨정 金廣通의 딸, 광산김씨 사이에서 3남 2녀 중 맏이로 기산에서 태어났다. 이때는 吉再-金宗直-金宏弼-趙光祖-朴祥으로 이어지는 조선조 사림의 화와 꽃이 동시에 피었다고 할 수 있는 靖陵文化時代가 열리기 시작한 중종 17년(1552) 임오년이다. 학문은 역학과 유학에 뛰어났던 태인의 서촌에 우거해 있던 一齋 李恒에게서 배웠다. 또한 金麟厚, 奇大升, 李珪와 도의지교를 맺어 사우로 지냈고 鄭澈, 梁應鼎, 崔慶昌, 李後白, 林億齡 등 제공들과도 교유했다.⁷⁾

백광홍은 28세에 사마시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고, 31세 명종 7년(1552) 임자년에 문과에 등방되어 정9품 弘文館正字로 환로생활을 시작했다. 그 해 임금의 명으로 泮宮에서 교예할 때 “冬至”라는 賦를 지어 1등하고, 選詩 10권을 하사 받았다. 이듬해 1553년 호당에 뽑히고 사가독서했던 수재였다.⁸⁾

백광홍은 1555년 명종 10년 을묘에 정6품 평안도 평사로 부임했다. 이때 관서의 풍광에 심취하고 원방의 심회와 자연의 경관을 가사로 지어 오늘에 전한 작품이 <관서별곡>이다. 그러나 공은 임기 중 득병하여 부임한 지 1년 여, 1556년에 치사하고, 동년 8월 27일 귀향 중 부안의 甥館 곧 치가에서 타계하니 불혹도 못 넘긴 35세였다.⁹⁾ 공의 묘소는 지금 행정구역상으로 부산면 호계리 산 77-6 雲峙 梨谷(벚골)에 있다.

백광홍의 작품으로 현재 한시, 특히 8편의 賦, 그 외 辭, 歌, 表, 또한 국문가사로 <관서별곡>을 지어 기행가사의 지평을 열어 한국 문학사에 큰 공적을 남겼다. 그러나 출중한 자질을 갖춘 시인으로 당시 詩林의 촉망이 컸던 공이, 洪直弼의 <墓碣銘>대로 “千資穎率하고 志業卓榮”했던 천부적 자질과 재주를 발휘하지 못하고 35세의 짧은 생애로 일생을 마친 것이 너무 아쉽다. “천재는 하늘도 시기한다.”는 말을 생각하게 하는 공의 생평이다.

5) 洪直弼, 『岐峯集』, <墓碣名>.
『水原白氏 世譜』.
拙稿, 위의 논문, 245쪽.

6) 白師, 『岐峯集』, <序>.

7) 上同.

8) 洪直弼, <墓碣名>.

9) 上同.

공의 배는 金世柱의 딸인 부안김씨로 그와의 사이에 남매를 두었다. 외아들인 東岩 鵬南의 후손들이 지금 장흥의 岐峯派水原白氏들이다. 백광홍이 타계한 242년 뒤 순조 8년 무진 1808년에 기산리 270번지에 세워진 기양사에 배향되어 있다.¹⁰⁾

2. 岐峯集과 關西別曲의 登梓

백광홍의 유고는 문중에 보관되어 전해왔다. 8세손 垢鎮에 의하면 공의 작품이 병란으로 대부분 유실되었고 남은 것만 수습하였으니 “千百 중에 十之一二”에 해당되며, 松山(솔피)에 보관하여 전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다. 송산은 해남 옥천에 있으며, 기봉이 태어난 기산과는 60여 리 떨어진 곳이다. 기봉의 아우 옥봉은 5세 때 옥천의 大山 鄭應瑞의 문하생이 되고 뒤에 서랑이 되었다. 지금도 이 송산은 백씨의 집성촌으로 마을 뒤쪽에 松山祠가 있고, 『玉峯集』의 목각, 친필, 선조가 하사한 靈輿 등 유물과 함께 공이 배향되어 온다.¹¹⁾

기산과 송산의 관계로 미루어 볼 때 기산에 있던 유고는 중도에 대부분 산일되고, 일찍 타계한 사형의 원고를 옥봉이 보관한 것이 다행히 전해진 것으로 본다. 백광홍의 요절로 아들 봉남과 그 누이는 숙부의 도움으로 옥천의 옥봉 집에서 자라고 입장하여 성가하였으니 백광홍의 유고가 송산에 보관되어 온 것은 사실일 것이다. 뒤에 송산에서 전해온 유고를 후손 萬榮이 手膾하여 결집한 것이 手膾舊本 1책으로 최초의 『기봉집』이다.¹²⁾

白師의 『기봉집』 <序>에 의하면 후손 鎮恒이 백광홍의 작품을 入梓하기 위해서 문집을 결집하였으니 이때 백사는 『기봉집』 1책을 보고 시가 대개 109편이고, 부가 8편에 이르나 千百 중에 十의 一일 뿐이라고 했다.¹³⁾ 이것이 두 번째 문집의 결집으로 생각된다. 백사의 <序>는 찬술한 연대를 지금 모른다.

『기봉집』의 <序>와 <跋>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奇宇萬의 <발>이다. 松沙 奇宇萬은 장성 출신으로 항일 의병장이었고 선비였다. 기우만이 己亥暮春 1839년에 <발>을 썼다. 그러므로 2차 『기봉집』 결집은 1839년경이다. 그런데 이때의 문집에 ‘서’가 없는 것으로 보아 鎮恒의 결집도 아직 완전한 것이 못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중단되지 않고 1846년 병오에 홍직필(1776~1852)에게 <묘갈명>을 받고, 5년 뒤 신해 1846년에 <序>도 받았다. 홍직필은 대사헌을 지냈던 분으로 한때 장흥의 庫奉事를 지냈다. 이때의 인연으로 <墓碣銘>과 <序>를 받았을 것이다. 이때의 주관은 河鎮과 圭祥이었다. 이 세 번째 결집도 미완성이었다.¹⁴⁾

그 뒤 15년이 지나서 1866년 고종 3년에 8세손 구진이 『기봉집』을 증보하여 완성했다. 이때 권지4 말미에 <관서별곡>을 등재한 것이 지금의 문집이다. 네 번의 결집을 거치면서 『기봉집』은 완성된 것이다. 이때 采寅과 義寅의 <跋> 이외의 글은 모두 등재됐다. 그러나

10) 白垢鎮, <跋>.

李相九, 『長興院詞錄』, 長興文化院, 1989, 92~95쪽.

11) 柳根, 『玉峯集』, <序>.

李廷龜, <序>.

申欽, <序>.

12) 白垢鎮, <跋>.

13) 白師, <序>.

14) 洪直弼, <序>.

洪直弼, <墓碣銘>.

아직 판각에는 이르지 못했다.¹⁵⁾ 『기봉집』이 판각된 것은 23년 뒤 광무 3년 고종 26년, 1889년 기해년 3월에 홍직필과 백사가 쓴 <서>가 붙은 앞의 문집에 채인과 의인의 <跋>을 달아서 ‘五卷 上下 二冊’으로 묶어서 문중이 비용을 추렴하여 安孃 舟山에서 목각으로 간행되었다.¹⁶⁾

1889년의 초간본은 종30.3cm, 횡20.3cm, 92장의 한지로 되었다. 이 책은 李家源도 소장하고 있으며 기산의 백씨문중에는 원본이 상당수 전한다. 이 문집은 다시 1987년 11월 1일 한국문학비건립동우회가 주체가 되어 호계의 운치 이곡산 77-6, 공의 묘소 아래 ‘岐峯歌碑’를 건립하면서 제막식 때 1책으로 합본 영인하여 학계에 배부하였다.¹⁷⁾

이 『기봉집』에 <관서별곡>이 등재된 경위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그리고 이 <관서별곡>의 원고가 보관되어 전해진 경로도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 작품이 가문에만 비장되어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 널리 유포되어 창으로 불리어졌던 것은 알 수 있다.

A. 贈白光弘 舊妓詩曰 錦繡煙霞依舊色 綾羅芳草至今春 仙娘去後無消息 一曲關西淚滿巾 白光弘曾任平安評事而卒 其所製關西別曲 至今傳唱 錦繡煙霞 綾羅芳草 乃其曲中語也¹⁸⁾

B. 關西別曲 岐峯白光弘所製 公爲平安評事 歷遍江山之美 聘望夷夏之交 關西佳麗寫出於一詞¹⁹⁾

<關西別曲>에 대한 평은 『大東野乘』, 『燃藜室記述』, 『星湖僿說』과 같은 기문집에도 언급이 안 보인다. 다만 『옥봉집』, 『증보문헌비고』 등에 단편적으로 기록이 있을 뿐이고 위의 A, B가 가장 중요한 평이다.

A는 이수광(1563~1628)의 『芝峯類說』에 나오는 글이다. 이수광은 백광홍이 타계한 7년 뒤에 태어난 분으로 51세, 1614년에 이 책을 찬술했다. 따라서 A의 “至今傳唱”의 표현으로 이수광이 이 책을 썼던 1614년에 창으로 불리어지고 있었다. 이때는 백광홍 사후 59년 때의 일이다.

B는 『旬五志』에 있는 洪萬宗(1643~1725)의 글이다. 『순오지』는 1678년 홍만종이 36세 때 저술한 글이니 <관서별곡>이 창작된 120년 뒤의 기록이다. 홍만종이 <관서별곡>을 두고 “關西佳麗寫出於一詞”라고 평한 것을 보면 작품을 직접 보았던 것 같다. 결국 A, B의 내용으로 미루어 <관서별곡>은 창작 후 세상에 널리 유포되었음을 의미한다.

<관서별곡>은 근자에 김동욱이 발견한 『雜歌』라는 가집에도 평과 함께 전한다. 김동욱은 『잡가』의 필사 연대를 1821년과 1881년 중에 하나로 추정했다.²⁰⁾ 1821년은 『기봉집』

15) 白垢鎮, <跋>.

16) 白采寅, <跋>.

白義寅, <跋>.

拙稿, 위의 논문, 246~249쪽.

17) 1987년에 간행된 영인본은 한국문학비동우회가 岐峯歌碑의 입비 기념으로 李相寶 편집, 金東旭 발행으로 500부 한정판으로 간행되었다. 이 영인본은 1889년 목각본이 저본이며, 이에 邊時淵의 서를 올리고 白南坤이 발을 붙였고, 李相寶, 丁益燮의 글을 첨부했다. 줄고의 작성에 두 분 글이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혀둔다(李相寶, 『關西別曲 研究』, 『국어국문학』 26호, 국어국문학회, 54~77쪽).

_____, 『白光弘의 關西別曲』, 『岐峯集』.

鄭益燮, 『關西別曲과 조선조 歌詞 문학』, 『岐峯集』.

18) 李晳光, 『芝峯類說』.

19) 洪萬宗, 『旬五志』.

20) 金東旭, 『壬亂 前後 歌辭 研究』, 『震壇學報』 25·26 합병호, 진단학회, 434~435쪽.

의 결집을 위해서 기우만에게 ‘서’를 부탁했던 1839년보다 18년 빠르고, 1881년은 초간본이 목각되기 8년 전이다. 『잡가』의 <관서별곡>은 이점으로 보아서 문중에서 간행한 『기봉집』을 보고 임서한 것이 아니라 향간의 전승본에서 필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잡가』와 『기봉집』의 <관서별곡>은 비교를 통해서 이질성 여부를 해결할 문제이나 기회가 없어서 과제로 남긴다. 이 『잡가』에는 19편의 가사와 작품에 대한 평어가 적혀 전한다.

關西別曲 九十二句 岐峯白光弘所製 公爲平安評事 歷遍江山之美 聘望夷夏之交 關西佳麗寫 出於一詞²¹⁾

위의 글은 『잡가』의 <관서별곡>에 대한 평이다. 홍만종의 것과 같다. 이러한 작품의 평이 문집의 ‘서’나 ‘발’에는 빠졌다. 여하간 <관서별곡>은 창작된 뒤 세상에 유포되어 전창되었고 평어까지도 곁들여 전해온 작품이다.

<관서별곡>의 내용은 1962년에 학계에 알려졌다. 이상보의 공이다. 1889년에 간행한 『기봉집』이 문중에 여러 질 있었고, 이가원도 동본을 1질 소장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관서별곡>이 있었으나 학계에서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상보가 이 작품을 발표하기 전에는 작자를 아우 백광훈으로 오인도 했었다. 李周洪은 심지어 <岐山別曲>과 <香山別曲>을 <관서별곡>으로 추론한 해프닝도 있었다.²²⁾

결론적으로 문집에서 <관서별곡>에 대한 언급은 “作關西別曲一闋”이라고 적은 홍직필의 <묘갈명>이 처음이다. 그 외에 <관서별곡>의 게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당시의 문집이 한시문 위주이고, 이 작품은 국문으로 되어 있어서 부각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1886년에 <관서별곡>은 원사대로 문집에 등재되었다. 그 증거는 백구진의 <跋>에 나온다.

其他可攷 詩文爲拜錄 而續爲下篇 關西一 備載²³⁾

1886년 『기봉집』을 증보하여 하편을 만들 때 권지4의 말에다 <관서별곡>을 등재시킨 것이다. 이 <관서별곡>은 문집에서 백광훈의 작품으로는 마지막이고, 권5부터는 安思美, 金河西, 梁松川 등 제현들 글이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대로 『잡가』에도 이 작품이 게재되어 전하니 현재로서는 이 두 책에 <관서별곡>이 등재되어 전하고 있는 셈이다.

3. 關西別曲의 位相

柳年錫은 가사문학의 총체를 4기로 나누어 정리하면서 <관서별곡>은 2기인 발생기에 넣었다. 또한 작품의 총람표에서 <관서별곡> 이전의 가사는 14개의 작품에 불과하고 내용적으로 불교, 서사, 은일, 유배, 교훈 등 단조로운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²⁴⁾

백광훈 이전의 가사 작가는 재론의 여지는 있으나 懶翁을 비롯해서 8명 정도이며, 1370년

21) 上同.

22) 李相寶, 앞의 논문, 54~55쪽.

23) 白垢鎭, <跋>.

24) 柳年錫, 『韓國 歌辭 文學史』, 국학자료원, 94~157쪽.

경 <서왕가>를 효시로 잡을 때 8명의 작가, 14개의 작품이 전부다. 이러한 가사문학의 판도에 백광홍의 등장은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관서별곡>의 이전은 작가나 작품 사이에 상호유대나 영향이 뚜렷하지 못했다. 곧 문학작품의 전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백광홍의 <관서별곡>부터 전수와 학습이라는 맥이 섰다. 16세기 호남의 전원가사에서 가사 문학의 두 맥이 나타난다. 하나가 丁克仁→宋純→鄭澈로 이어진 <賞春曲>→<俛仰亭歌>→<星山別曲>의 계보이고, 또한 ‘李緒→宋純→鄭澈’로, 그래서 <樂志歌>→<俛仰亭歌>→<星山別曲>로 이어진 맥이다.²⁵⁾

한편 백광홍→정철로 이어지는 가사의 다른 하나의 맥이 형성되었다. 정철은 백광홍보다 14년 연하이나 기봉의 아우 옥봉과 절친했고 같은 호남에서 활동한 시인으로 서로 수창하고 살았던 가까운 사이의 인물이다. 뒷날 정철은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 일찍이 유포되어 있었던 <관서별곡>을 참고하고 <관동별곡>을 지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두 작품의 영향과 수수관계는 가사의 내용을 직접 대비하면 <관서별곡>→<관동별곡>으로 그 맥이 이어졌음을 바로 알 수 있다.

(西) 關西名勝地에 王命으로 보내실새

(東) 關東팔빅리에 方面을 맞디시니

(西) 延韶門 닉달아 모화고기 너머드니

(東) 延秋門 드리드라 慶會南門 바라보며

(西) 碧蹄에 말가라 臨津에 天水院 도라드니

(東) 平邱驛 물을그라 黑水로 도라드니

(西) 十里波光과 萬里烟柳는 上下의 어리었다

(東) 十里氷紈을 다리고 고쳐다려

(西) 練光亭 도라드러 浮碧樓에 올라가니

(東) 金欄窟 도라드러 叢石亭 올라흐니

(西) 白祥樓에 올라안즈 晴川江 바라보니

(東) 開心臺 고터올나 衆香城 바라보며

(西) 梨園에 꽃피고 杜鵑花 못다진제

(東) 梨花는 불셔디고 楸동새 슬피울제

(西) 營中이 무사커늘 山水를 보라흐야

(東) 營中이 無事호고 時節이 三月인제

25) 金東旭, 『韓國歌辭研究續』, 二友出版社, 150쪽.

李相寶, 『韓國歌辭文學研究』, 형설출판사, 95~96쪽.

李鍾建, 『俛仰亭 宋純 研究』, 개문사, 13쪽.

(西) 形勢도 ㄱ이엿다 風景인달 아니보라
 (東) 形容도 그지엿고 體勢도 하도할샤

(西) 雪寒재 뒤에두고 長白山 구버보니
 (東) 小香爐 大香爐 눈아래 구버보며

(西) 九龍쇼의 비를미고 統軍亭의 올라가니
 (東) 孤丹解纜호야 亭子우희 올라가니

(西) 帝鄉이 어디메오 鳳凰城 갓갓도다
 (東) 蟾江은 어디메오 雉岳은 여기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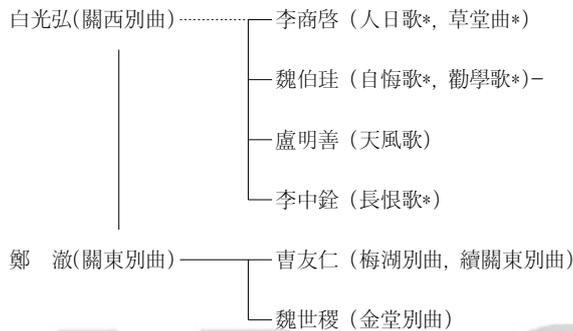
* 작품의 서두

(西)-92구	(東)-139구
關西 名勝地에	江湖에 病이 곱과
王命으로 보너실식	竹林에 누엇더니
行裝을 다사리니	關東 八百里에
칼호나 썬이로다	方面을 맞디시니
延詔門 너달아	어와 聖恩이야
모화고개 너머드니	가디록 罔極하다
歸心이 식르거니	延秋門 드리다라
碧蹄에 말가라	慶會南門 바라보며
臨津에 비건너	下直고 물러나니
天水院 도라드니	玉節이 압괘 섰다
松京은 故國이라	平邱驛 말을 가라
.....	黑水로 도라드니
.....	蟾江은 어디메오
.....	雉岳이 여기로다

두 작품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文型 및 문체가 동일하다. 또한 어휘의 선택은 60~70% 정도가 같거나 비슷하다. 이외에도 ‘소명-유람-연군’으로 이어진 구성, 표현법과 수사, 용사의 남용 등 <관동별곡>은 <관서별곡>의 직접적인 영향 밑에서 창작된 것이다. 지금까지 논술한 요지는 가사가 16세기에 호남에서부터 작품간의 하나의 맥락을 형성하면서 창작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낙지가>→<면양정가>→<성산별곡>의 맥과, <관서별곡>→<관동별곡>의 맥이 그것이다. <관서별곡>의 또 하나의 의의는 내용적으로 ‘紀行’이라고 하는 영역의 확대다. 백광홍은 ‘歌辭+紀行’의 접목을 시도하여 성공했다. 원래 ‘기행’은 답사한 노정과 풍광을 동시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여건상 설명이 주가 되는 산문의 형태가 요망되어, 표출 위주인 시가의 형태로는 접근이 어렵다. 그러나 백광홍은 ‘가사+기행’의 접목을 시도하여 성공했다. 그러나 백광홍은 산문으로 표현될 내용을 시가에 수용하여 기행가사라는 가사의 한 형태를 창출시켰다. 곧 백광홍이 ‘기행’을 가사에 접합시켜서 기행가사를 최초로 창작한 그의 공은 높이 평가받아야 될 것이다.

백광홍의 기행가사는 창출로만 끝나지 않고 호응을 받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후속의 작품이 계속되어 한 맥락을 만들고 이어지면서 결실을 본 것이다. 정의섭은 백광홍에서 시작된 기행가사의 계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가 있다.²⁶⁾



이상의 계보가 기행가사의 맥락으로는 다소 재고가 요망되나 백광홍이 지은 <관서별곡>의 파급과 영향권에서 비롯된 가사의 맥락이란 점에서는 주목된다.

위의 계보가 나온 인물 가운데 정철과 조우인을 제외하면 모두가 장흥인이다. 우리는 여기서 한국의 기행가사가 장흥에서부터 출범한 사실도 중요하나 그 맥의 성장도 위세직(1655~1721)으로 이어가므로 장흥인이 중심이 되어서 발전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26) 丁益燮, 『關西別曲과 조선조 歌辭文學』, 『岐峯集』 전국 시가비 건립 동호회, 39쪽.

——, 『改稿 湖南 歌壇 研究』, 민문고, 44쪽, 108쪽.

Ⅲ. 長興과 歌辭文學

장흥 출신의 가사 작가는 백광홍 이후 계속해서 이어진다. 위세직(<금당별곡>), 노명선(<천풍가>), 위백규(<자회가>, <권학가>, <오륜가>, <합강정선유가>), 이상계(<권학가>, <권리가>, <경독가>, <독락가>, <담락가>, <초당곡>, <인일가>), 이충전(<장한가>)) 그리고 문규태(1875~1955)(<덕장구곡가>, <덕천심원곡>)가 가사를 지어 남기고 있다.

지금 알려진 바로도 장흥의 가사는 7명의 작가에 17개의 작품이 창작되어 전한다. 이는 한 고을에서 생산된 작품으로서 우선 양적으로 대단한 것이다. 또한 장흥에서 가사문학이 크게 발전했고, 지속적으로 맥을 이어오면서 20세기까지 창작되고 있었던 것은 작가들의 생존연대로 짐작할 수 있다. 장흥에서 가사의 맥이 끊어진 일이 없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이야기이다.

장흥의 가사문학은 이 모든 소산의 핵이 백광홍의 <관서별곡>으로부터이다. 그러나 이 <관서별곡>을 장흥문학과 장흥가사로 포함시킬 때 다소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곧 <관서별곡>의 소재가 장흥이 아니고 관서의 강산이기 때문에 이 작품의 원적은 해석과 시각에 따라서 장흥문학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흥문학인 것은 무엇보다 작자의 출생지가 장흥이라는 점에 있다. 비유를 들자면, 여행기는 여행지의 소유가 아니고 여행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작품의 원적을 따지는데 중요한 관건은 그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는 태도, 이를테면 선택한 소재에 대한 시각과 작품 속에 담아서 표현되는 정서와 사상이 어느 쪽이고 그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논리에서 <관서별곡>에 드러난 정서와 철학이 관서인의 것이 아니고 장흥인의 것이라면 당연히 이 작품은 관서의 사람과는 무관한 장흥인의 것이고 또한 장흥문학의 범주로 들어가야 된다.

백광홍은 36세로 짧은 생애를 마치면서 31세까지는 장흥의 사자산 밑 기산에서 살면서 장흥의 산과 강, 곧 장흥의 환경과 문화 속에서 인격과 학문을 닦고 사상과 정서를 길렀던 토박이 장흥인이다. 이 점은 백광홍의 몸 속에 흐르는 문학적 정서와 소양, 사상과 철학 그 일체가 장흥인의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관서별곡>은 장흥인 백광홍이 태어나면서부터 가꿔온 시인으로서의 정서와 사상 등 모든 요소를 다만 관서의 강산이란 액자에다 담아서 작품으로 형상화한 것이므로 이는 장흥인이 창작한 장흥문학에 속한다는 주장이다.

작품의 서두에서부터 “歸心이 썩르거니 故鄉을 思念하랴”라고 노래하면서 장흥을 생각한다. “思親 客淚는 절로흘러 모로미라”에 드러난 奉孝도, “어늬제 形勝을 記錄하야 九重天의 스로료 未久上達 千門 하리라”에 나타난 誠忠도 장흥에서 자라면서 익히고 닦은 정서인 것이다.

이 <관서별곡>의 맥은 25년을 지나서 정철의 <관동별곡>을 낳고, 다시 41년 뒤 조우인의 <속관동별곡>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장흥의 백광홍이 시도한 기행가사가 고을을 벗어나 밖으로 나아가는 확산이고, 다시 말하면 총체적 한국 문학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한편 장흥에서는 이 <관서별곡>이 장흥인의 것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장흥에서 장흥인들이 전창하며 가꿔나간다. 100여 년 뒤 위세직(1655~1721)이 금당도와 매화도를 유람하며 <금당별곡>을 지어 기행가사로 백광홍의 맥을 잇는다. 그리고 다시 노명선(1707~1775)이 천관산의 경관을 유람하고 <천풍가>를 지어 장흥에서 기행가사의 바탕을 다진다. 백광홍이 시도한 기행가사는 역내와 역외의 두 맥으로 성장하여 이어진 셈이다.

18세기에 이르면 장흥의 가사는 기행가사로 한정된 것이 아니다. 노명선보다 조금 늦게 위

백규(1727~1798)가 천관산 및 長天齋에서 학문을 크게 이루었다. 그의 학문은 유학은 물론이고, 천문, 지리, 律歷, 卜筮에 이르기까지 실학에도 정통했고, 가사로 <自悔歌>, <勸學歌>, <합강정선유가>, 시조로 <農歌> 9수를 지어 장흥의 문운을 떨쳤다. 위백규는 장흥의 가사가 그때까지 내용적으로 '기행'에 머물렀던 것을 다양화시켜 장흥의 가사문학을 종전의 좁은 폭에서 한 단계 넓혔다.

위백규를 이어서 이상계(1758~1822)가 <초당곡>과 <인일가> 등을 짓고, 다시 이중전(1825~1923)이 <장한가>을 창작하므로 백광홍 이후 한 고을에서 7명의 작가에 17개의 작품이 생산되어 장흥에서 가사문학의 판을 굳히고, 장흥을 문향으로서 성가를 높였다.

이상과 같이 장흥에서 생산된 7명 17개의 작품은 앞으로 구체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일찍이 李鍾出은 장흥지역의 가사에 대해서 거의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작품도 찾아내어 큰공을 세웠다.²⁷⁾ 그러나 당시는 작품의 발굴과 학계에 알린다는 목적이 더 컸다. 차후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것을 보강하고 더욱 깊이 천착하여 장흥의 가사문학은 총체적으로 그 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백광홍에서 시작된 장흥의 가사 문학 이해하기 위한 선제 작업으로, 장흥의 연혁과 풍토 자연 환경, 그 속에서 가꾸온 장흥인의 품성을 소략하게 살폈다. 장흥의 가사는 백광홍의 <관서별곡>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백광홍은 詩, 賦, 辭, 歌, 表에도 능했으나 국문가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분으로 <관서별곡>을 창작하여 기행가사의 지평을 열었다. 이 <관서별곡>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품이 상재되어 전하고 있는 백광홍의 문집인 『기봉집』의 네 차례에 걸친 결집의 어려움과 <관서별곡>의 등재 과정을 살폈다.

16세기에 호남의 가사문학은 산발성에서 벗어나면서 맥락을 형성하면서 발전했다. 그 맥의 하나는 李緒→宋純→鄭澈로 이어지는 전원가사의 맥이고, 다음은 白光弘→鄭澈→曹友仁의 맥과 白光弘-魏世稷-盧明善으로 이어진 기행가사의 맥이다. 본 고에서는 이 중 백광홍의 <관서별곡>이 장흥의 안과 밖으로 맥을 형성하며 가사문학 발전의 바탕을 다진 의의와 위상을 살폈다.

장흥의 가사문학의 총체적 상황은 백광홍에서 시작되어 魏世稷, 盧明善, 魏伯珪, 李商啓, 李中銓, 文桂泰로 이어지면서 도도히 발전한다. 이들이 창작한 작품은 <關西別曲>, <金堂別曲>, <天風歌>, <自悔歌>, <勸學歌>, <五倫歌>, <합강정선유가>, <勸學歌>, <闕里歌>, <獨樂歌>, <湛樂歌>, <草堂曲>, <人日歌>, <長恨歌>, <德岡九曲歌>, <德泉尋源歌> 등. 7명의 작가에 17개의 작품이 한 고을에서 생산된 셈이다. 이는 한국가사의 본원지로 잡고 있는 담양과 양적인 면에서는 뒤지지 않는다. 담양은 현재 10인의 자가에 18작품이 전하고 작품 이름만 전한 작품(양산보:<애일가>)이 한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장흥의 가사작가와 작품 연구는 물론이고, 작가와 작가, 작품과 작품간의 영향과 유대 등 철저한 앞으로의 천착을

27) 李鍾出, 「魏世寶의 金塘別曲攷」, 『국어국문학』 34·35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67, 177~186쪽.

_____, 「止齋 李商啓의 歌辭攷」, 『국어국문학』 33호, 국어국문학회, 77~100쪽.

_____, 「魏伯珪의 歌辭 <自悔歌>에 대하여」, 『師大論文集』, 조선대학교, 31~41쪽.

_____, 「合江亭 船遊歌攷」, 『語文學論叢』, 조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66.

_____, 「天風歌解題」, 『韓國言語文學』 4집, 한국언어학회, 1966.

_____, 『韓國古詩歌研究』, 태학사, 416~487쪽.

위한 전제의 장을 열었을 뿐이다.

참고 문헌

『高麗史』

『岐峯集』

『水原白氏世譜』

『旬五志』

『新增東國輿地勝覽』

『玉峰集』

『長興郡誌』

『芝峰類說』

金東旭, 「壬亂前後歌辭研究」, 『震壇學報』 25~26합병호, 1964.

金成基, 「長興地域의 歌辭 研究」, 『韓國言語文學』 35집, 韓國言語文學會, 1995.

류연석, 『韓國歌辭文學史』, 국학자료원, 1994.

李相九, 『長興院詞錄』, 長興文化院, 1989.

李相寶, 「關西別曲研究」, 『국어국문학』 26호, 1963.

李鍾出, 「天風歌解題」, 『韓國言語文學』 4집, 韓國言語文學會, 1966.

丁益燮, 「〈關西別曲〉과 歌辭文學」, 『岐峯集』, 1987.

<논문투고일 : 2004.6.26. 심사완료일 : 2004.7.31. 게재확정일 : 2004.8.13>

<Abstract>

Baek Gwang-hong's Gwan-seo-byol-gok and Gi-haeng-ga-sa(Travel Words)

Kim, Seong-ki

It has been said that words(Gasa) literature in Jang-heung was pioneered by Baek Gwang-hong. With a purpose to study Jangheung's Gasa(words),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of Jang-heung and its natural environment for preparation of the study.

Jangheung's Gasa started from BaekGwang-hong's Gwan-seo-byol-gok. It is the first travel words in our country, which twenty-five years later, influenced on creation of <Gwan-dong-byol-gok> by Jeong Cheol. This study compares the <Gwan-dong-byol-gok> and the <Gwan-seo-byol-gok> to specifically identify the influence. The <Gwan-seo-byol-gok> influenced on Jeong Cheol's <Gwan-dong-byol-gok> followed by Jo Woo-in's <Sok-Gwan-dong-byol-gok> outside Jangheung. However, within Jangheung, it influenced on We Se-jik's Geum-dang-byol-gok, No Myeong-sun's Chon-pung-ga and We Baek-gyu's Hap-gang-jeong-seon-yu-ga. That is, this study examines the external and internal influence of <Gwan-seo-byol-gok> and its status as a masterpiece.

Thanks to the influence of <Gwan-seo-byol-gok>, no less than seventeen works from seven writers were produced in Jangheung.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ravel words in our country was originated from the <Gwan-seo-byol-gok>.

Key words : Baek Gwang-hong, *Gwan-seo-byol-gok*, *Gi-haeng-ga-sa*, *Gwan-dong-byol-gok*

KCS I